

TV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and 1-12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table listing various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with their respective broadcast times.

“열정 넘치는 배우들 보며 한국영화 고집 느꼈다”

오다기리 조, 화제작 '마이웨이' 특별시사회 참석

화제작 '마이웨이'(감독 강제규·제작 디렉터스)의 블루레이 및 DVD 발매기념 특별 시사회가 5일 도쿄의 스페이스FS 시모도메에서 열렸다. 한류스타 장동건과 호흡을 맞춘 톱배우 오다기리 조와 아마모토 타로가 이날 시사회 특별손님으로 참석했다. 극 중에서 일본군 장교 하세가와 타츠오를 열연한 오다기리 조는 “한국 작품에 일본인 배우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일본 예술계를 대표한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최선을 다하는 배우와 스태프를 보며 그 열정을, 9개월간의 촬영을 통해 한국영화의 고집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장동건에 대해서는 “정말 어디 하나 흠집을 데 없는 훌륭한 배우이자 멋진 인

간”이라고 칭찬했다. 일본군 노다 역의 아마모토 타로는 “약질 일본인 병사를 연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 세상의 다양한 캐릭터 가운데 노다라는 인간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며 몰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어려운 작품이지만 보고 난 뒤 뭐가 하나라도 마음에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가 끝날 무렵 오다기리 조가 지난달 30일 일반인 여성과 결혼 발표를 한 아마모토 타로에게 깜짝 선물로 꽃다발을 주면서 축하해 행사장 가득 박수가 터졌다. 조선과 일본의 두 청년 김준식(장동건 분)



과 하세가와 타츠오(오다기리 조 분)가 2차 세계대전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군과 소련군, 독일군을 거쳐 노르망디에 이르는 1만2000km의 기나긴 전쟁을 우정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마이웨이' 블루레이 및 DVD는 6일 발매된다. /연합뉴스

KBS 노사 합의 93일만에 파업 중단 결정

대선공정방송위원회 설치 합의... 노조 공정보도 투쟁은 이어갈 듯

KBS 노사가 총파업 93일 만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노조가 조만간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KBS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12월 대통령선거 공정보도'라는 큰 틀에서 합의에 도달했으며, KBS 새노조는 7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파업 중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KBS 새노조는 지난 3월 6일부터 '특보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KBS 사상 최장기 파업을 이어왔다. 노사는 협상을 통해 대선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했으며, 노조 측은 대선 국면

에서 업무에 복귀해 '공정보도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KBS 관계자는 “조합원 총회 등 마무리 절차가 남아있지만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7일(음 4월 18일 己亥). 운세 forecast for various zodiac signs including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굿모닝 잉글리쉬. I just have the blahs. 그저 짜뿌듯할 뿐이에요. A: Good afternoon, Neully. How are you today? B: Oh, so-so. A: Why do you say that? What's wrong? B: Nothing really. I just have the blahs. What about you? A: 안녕, 넬리 씨, 잘 지내요? B: 아, 그저 그래요. A: 왜 그렇게 말하죠? 무슨 문제 있어요? B: 별건 아니구요. 그저 짜뿌듯할 뿐이에요. 선생님님은요? * Not very good > So-so > Not very bad * Nothing really = Nothing serious = Nothing important * blah : 언짢음, 몸이 불편함

한자이야기. 長頸烏喙(장경우회). 길/어른 장, 목 경, 까마귀 우, 부리 휘. 장경우회(長頸烏喙)는 기다란 목에 까마귀 부리같이 뾰족한 입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관상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월왕(越王) 구천(勾踐)이 오(吳)나라를 멸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범려였다. 그러나 범려는 구천의 인물됨에 대해 깨닫고 있었으므로, 구천에게 작별을 고하고 제(齊)나라로 갔다. 그는 제나라에서 월나라의 대부(大夫) 중(種)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새가 다하면 좋은 활은 쓸모가 없고,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게 죽으니, 적국(敵國)이 망하면 모사(謀士)가 죽는 법이오. 게다가 구천의 상(相)은 목이 길고 입은 까마귀 주둥이요. 이런 인물은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으나 즐거움은 함께 누릴 수 없소. 빨리 구천을 떠나시오.” 중은 범려와 함께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충신이었다. 범려의 예상대로 구천은 얼마 뒤 중을 죽여 버렸다. [출전] <사기(史記) 월세가(越世家)

니하오 쑹구위. 裝蒜 zhuāng suàn. 마늘인척 꾸며 놓아 속이다. ‘裝’은 ‘치장하다, 분장하다, 설치하다, 물건을 담다, 저장하다’라는 등의 뜻이 많은 동사입니다. ‘裝이 마늘을 나타내는 蒜과 결합하면 ‘시치미 떼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청나라 건륭황제가 볼남 남부지방을 순방하게 되었는데, 가는 길마다 푸른 마늘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이듬해 겨울 다시 남부지방을 순방하며 그 마늘이 자라는 발을 보고 싶다고 했지요. 남쪽 관리들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마늘이 자라지 않는 겨울철에 마늘이 아닌 다른 푸른색의 작물을 그 자리에 심고서 눈속임으로 황제를 기쁘게 했습니다. ‘裝蒜’은 ‘裝洋蒜’으로도 쓰입니다.

오하오우 니혼고. こちらでコートをお召ください. 여기에서 코트를 입으세요. A: では、そういうことで。 B: はい。よろしく願いいたします。 A: 外は寒いですよ。こちらでコートをお召ください。 B: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では、失礼して着させていただきます。 A: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B: 네. 잘 부탁 드립니다. A: 밝은 출습니다. 여기서 코트를 입으십시오. B: 고맙습니다. 그럼, 실례하지만 입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정리] では、そういうことで 거래를 종료할 때 사용하는 말. お召ください ‘着てください(입으세요)’의 경우. 着させていただきます ‘着ます(입습니다)’의 경우.